

한국패션의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showed in Korean modern fashion

이은영* · 박하나
배재대학교 의류학과

Eun- Young Lee · Ha-Na Park
Dept.of clothing&textile paicha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rientalism in Korean modern fashion by Korean fashion designers. Orientalism in fashion has been widely known to people by the efforts of many researchers, but that in Korean fashion wasn't. We thus study the aesthetic meaning of Korean orientalism, and extend it to oriental fashion as well as meaning of modern orientalism shown in Korean fashion.

For this study, we categorized the orientalism in Korean fashion as follows: 1) mix orientalism; 2) natural beauty with non technical skill; 3) humorous beauty; 4) color beauty

Key Words: Korean orientalism, mixorientalism, natural beauty, humorous beauty, color

I. 서론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여 객관적으로 오리엔탈에 대한 정의는 많이 알려졌다. 최근 서구 디자이너의 획일적 디자인에 대한 한계와 싫증으로 신비롭고 이국적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독특한 미의식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구의 디자이너들은 19세기 중엽 문화전반에 일었던 일본취미의 등장에서부터 중국의 개방화 이후 동양적 디자인은 일본과 중국의 전통적 요소를 재해석하며, 에스닉과 자연주의에 대한 문화적 트렌드 역시 동방주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반해 한국적 디자인이 세계무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국적불명의 요소와 혼란되어 보여 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1993년 이후 홍미화, 진태옥, 이신우등의 디자이너들이 프레타 포르테를 통해 꾸준히 한국미를 알리고 있다. 한국미

는 특히 전통한복에서 보여 지는 소박한 자연미와, 세부적 실루엣보다는 보자기와 장옷에서 보여 지는 유머러스한 해학미와 소박미, 즉 자유분방함의 미(이효진, 2001)로 함축되는 내면적 특성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차별화 할 수 있는 한국의 오리엔탈리즘적 요소를 최근 한국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세계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의 정체성을 살펴보고자하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 오리엔탈리즘과 현대의 뉴오리엔탈리즘을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한복의 세계화를 통해 한국적 전통이 세계무대에 디자이너를 통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90년대 이후 컬렉션 사진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또한 이렇게 세계화된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의 미적특성을 내재된 미의 속성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2003년도 배재대학교 교내연구비 수혜 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Lee Eun Young

Tel: 042)5205412

E-mail: el@pcu.ac.kr

II. 역사적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오리엔트(Orient)」라는 라틴어 오리엔스(Oriens)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 자체가 “해뜨는 곳”, “일출”, “동방”이라는 뜻으로 지중해 동쪽을 가리킨다. 이는 로마인이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의 동쪽을 지칭하여 부르는 말로써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한다. 일본을 위시한 극동지역이 서양에 인식되기 시작한 근대시기 이전까지 거의 1천년 동안 아랍과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중동이 동양을 대표해 왔다. 그러나 지리적 지식이 확대됨에 따라 오리엔트라 말하는 지칭하는 범위는 오늘날에는 가까운 근동, 중동, 극동, 또는 원동 및 북부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터키 동쪽의 아시아 전지역으로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성향숙, 2001).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로써(이승환, 1997) “orient”은 곧 동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양문화 속에서 그들 문화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동방적 정서, 동방적 취미, 동방적 예술의 애호로써 불려지는 용어로 근세 유럽에 있어서 문학, 예술상의 한 풍조로 나타난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적인 취미를 말하는 것이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3).

동방세계에 대한 낭만주의적 경향은 18세기 경부터 유럽 각지의 상류계급 사이에 유행하여 시노와저리(chinoiserie: 중국취미), 튀르크리(turquerie: 터키취미)라고 하여 미술이나 음악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특히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1798-1799)을 계기로 하여 낭만주의에 있어서 오리엔탈리즘의 경향은 그 정점에 달하였다.

이처럼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와 다른 지역에 대한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전반에 대한 지식체계를 가리키며, 이국적이고 동양적인 것 모두를 뜻하였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이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서구인의 시각 즉 제국주의에서 형성된 동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말한다. 서구인들에게 동양은 언제나 자아(the self)에 대비되는 타자(The other)였고, 상상의 대상이며 정복의 대상이었다(권유진, 1997).

이러한 시각은 Edward W. Said의 저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차별적 이분법에 입각한 서구 중심적인 동양관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과 그 의미작용의 질서가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현대사회에서 그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동양에 대한 표상에 관하여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동양이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시기에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구

성(construct)”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인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성향숙). 이것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지배대상으로서의 제국주의적 시각의 동양과 상상적 이상향으로서의 낭만주의적 동양이라는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일원화된 시각에서 벗어난 탈이원논리, 다원주의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양상으로 흐르면서 절대적인 문화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양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화의 동서양적 접목으로 인하여 고유한 민속풍이 새로운 문화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이 동양을 단지 취미와 흥미만으로 또는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동양의 가치관, 문화전반에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동양적인 문화, 가치관, 사상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III. 20세기 오리엔탈리즘과 현대패션

복식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이란 지리적으로 터키, 동쪽의 아시아 전체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민속 복식에 사용된 형태적 이미지, 색상, 문양 등을 서양 복식에 도입한 것으로, 복식 요소들을 이용해 민속적이며 이국적인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이춘희, 신상옥, 2000).

서양복식에 나타난 동양의 영향을 고찰해보면 기원적 2세기경부터 실크로드를 통한 인도의 보석, 진주, 면직물과 소량의 중국 실크유입으로 동서 복식문화 교류의 전초 역할을 했다(정홍숙, 1981).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동양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인도, 중국, 시리아, 아라비아 등지로부터 비단, 향료, 보석 등이 수입되었고(정홍숙, 2001), 황실전용 견직물 직조공장을 세워 유럽에서 처음으로 비단을 직조하기 시작한 후 직물이 급속히 발전하였다(권현주, 1998). 이와 같은 동방문화의 교류로 페르시아의 화려한 색채감, 중국의 견직물 등은 비잔틴 복식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었고, 십자군 전쟁(1096-1291)은 유럽인들이 중동의 화려한 의상과 접촉하는 계기가 됨으로서 궁정복식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다(V. Steele, 1998).

화려한 직물과 직조, 자수 앞트임으로 인한 단추사용, 금은사를 꼬아 만든 허리장식 등의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어 14·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의 발전으로 근대 서구사회를 촉진시켰고 이를 배경으로 동양의 질 좋은 부로케이드(brocade)와 벨벳(velvet)을 비롯한 직물과 염료, 염색기술의 수입으로 유

럽의 염료 개발에 초석이 되었다(장승미, 2000).

17세기 유럽 각국은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영국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극동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일본이나 중국의 화려한 조끼, 중국식 가운, 인도 복식의 세부장식이 그림으로 소개되고 중국, 인도, 몽골 복식의 실물이 전개되었다. 특히 인도에서 목면에 날염한 인디엔느(Indienne)라는 직물은 주로 귀족 의상에만 사용되었고 그 사치 성향으로 인해 금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1990).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직조 방적 기술이 향상되어 동방 풍의 직물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복식에도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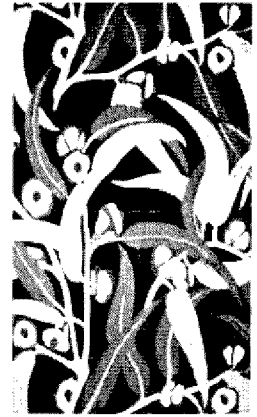
근세에 이르러 유럽인들의 중국이나 극동의 문물수집 증대에 따라 현저해진 진시노와저리 경향은 18세기에 그 절정을 달해 중국풍의 문양이나 풍물이 도자기의 색채와 문양, 칠기, 탑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중국 건축 양식의 파고다(pagoda)는 유럽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고 쉽게 인식된 중국의 상징물이 되었다. 그 예로 곶칼 형태의 모자, 남자들의 피그테일(pigtail:번발), 가발 등이 있다. 이러한 동양풍의 영향은 아르누보 거장인 반데벨트(H. van de Velde. 1863-1967)가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일본 기모노풍의 의상을 디자인한 것을 바탕으로 일본풍의 관심을 한층 고조 시켰다(장승미).

20세기 이후에도 오리엔탈리즘은 복식과 예술사조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아르데코(Art Deco)의 강렬하고 밝은 색조와 이슬람과 중국풍의 공예품과 일본판화에 영향을 받은 아라베스크 문양(그림 2) 등은 강하고 단순한 형상을 적절히 표출하기 위해 강렬하고 뚜렷한 색채 대비를 구사했다.

1909년 Diaghilev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단의 세헤라자데(그림 1) 파리공연이 복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1960년대 오리엔탈 룩은 히피(그림 3)운동에서 촉진되었다. 히피는 동양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인도, 러시아, 터키들의 복식요소를 도입하였고 힌두교의 로브, 네루, 수도승 튜닉, 제3세계의 민속의상과 장신구 등을 착용하고 그들의 주장을 의복을 통해 드러내며 오리엔탈 룩은 그들의 복식 문화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70년대 이후 오리엔탈 룩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다수의 디자이너, 다양한 디자인이 현대패션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디자이너로 Issey Miyake, Kenzo, Yohji Yamamoto, Valentino, John Galiano, Givanchy, Jean Paul Gaultier 등이 있다. (그림 4, 5, 6, 7, 8)



[그림 1] 1911.2.8
Harem Pantaloo Style
Dress, Paul poiret
Mademoiselle Yane



[그림 2] Encalytus Tree
Private Collection,
London 1912



[그림 3] 1960년대의 히피
(자료출처:www.naver.com)



[그림 4] Issey Miyake,
1997 S/S



[그림 5] Kenzo, 1996 F/W



[그림 6] Jean Paul
Gaultier 1999 S/S



[그림 7] Christian Dior,
97/98 A/W



[그림 8] Givanchy,
1998 Spring haute couture

IV. 한국의 현대 패션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

1. 한복에 나타난 세계화와 현대 한국패션

1) 한복

한복에 나타난 한국미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한복치마저고리의 곡선, 함 싸는 보자기, 한복치마말기, 조각보, 매듭끈, 장옷 등에서 천연소재를 자연색으로 염색하는 것이다.

또한 비대칭적인 착장과 볼륨감있는 착장, 디테일이 무시된 착장, 여유가 강조된 착장 등이다(이효진, 2002). 거리까지 않으며 즉흥적이고, 비대칭적이며 왜곡된 착장은 최근 한국의 디자이너, 진태옥, 설윤형, 이신우, 오은환, 한혜자, 박혜숙, 김동순, 이영희 등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한국적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이들 디자이너의 국제무대 진출과 88올림픽이후의 풍성하고 여유 있는 실루엣, 치마저고리의 비례, 저고리의 디테일과 같은 형태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전통문양과 벽화, 민화, 풍속화 등을 모티브로한 디자인 개발의 시도로 세계패션디자인에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박상오, 2002)

2) 표현형식

한복은 외형적인 형태에서 직선과 곡선이 평면으로 구

성되어 여유로운 실루엣과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곡선의 이미지는 은은한 생동감과 울동감을 만들어 내고 직선은 곧고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옷의 선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이병화). 저고리의 비율은 황금비율로 한국인의 체형에 이상적인 형태이며 치마저고리의 대칭균형에 반하여 저고리의 여밈 역할을 하는 옷고름과 저고리 길에 사선으로 엮어지는 것의 비대칭은 균형을 깨는 비균제성의 특징을 나타낸다(박상오). 치마의 풍성하고 여유 있는 형태감과 울동적으로 접어들린 곡선은 유동적인 선을 형성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주름의 드레이프는 다양한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한복의 형태적인 미를 가장 잘 표현한 디자인어는 이영희다. 그녀는 조선시대 초기의 저고리, 한복치마, 두루마기, 배자, 승복 등을 응용하여 형태의 큰 변화 없이도 세계 패션계에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을 현대적으로 소개하였다(그림 9). 진태옥은 심플한 한복선을 기본으로 현대적인 캐주얼 양식을 전개하며 서구 복식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10)

소재로는 거칠고 투박한 삼베와 같은 마직물과 소박한 무명, 노방 등을 사용하여 선의 미를 구체화시켰다. 특히 울이 굵고 거친 느낌의 삼베와 섬세하고 단아한 아름다움과 넓게 비치는 천연의 아름다움으로 선정적인 느낌을 갖는 모시는 현대에도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할 때 애용되는 소재이다(박영순, 이현주, 1998). [그림 11]은 홍미화의 작품으로 거칠고 소박한 소재를 사용하여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감성을 표현하였으며 [그림 12]은 이영희의 작품으로 은은히 비치는 고운 모시는 동양적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며 소재로 표현되는 한국적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색상은 자연적인 색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흰색은 민족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색상으로 소박하고 겸허함을 상징한다. 그 외에도 음양오행사상을 기본으로 한 청색, 백색, 적색, 황색의 다섯 가지의 주술적인 의미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패션에 다양한 배합과 대비로서 패션에 표현되었다. [그림 13]은 한혜자의 작품으로 꾸밈없는 자연에서 보여 지는 색조를 의상에 적용함으로써 색상으로 표현되는 한국적 오리엔탈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4]는 전통 조각보의 색채미를 살린 작품으로 설윤형의 작품이다.

90년대 중반이후 시도되어진 전통적인 문양의 접목에 의한 패션은 보다 다양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십장생, 사군자, 화조도, 길상문, 나비, 박쥐, 용, 호랑이, 봉황 등 전통적인 문양과 함께 벽화, 민화, 풍속화 등을 모티브로 한 문양을 자수, 프린트 등의 기법을 응용하여 서구복식의 조형

성에 접목하였다. 이신우는 94년 추동 파리컬렉션에서 옛 고구려 벽화의 “해의 신”과 “달의 신”을 응용한 프린트를 컬렉션 테마로 하여 주목을 받았다(그림 15). [그림 16]은 화려한 자수 기법으로 의상에 전통적인 문양을 표현함으로써 한국적 오리엔탈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9] 이영희
Carnegie Hall
winds of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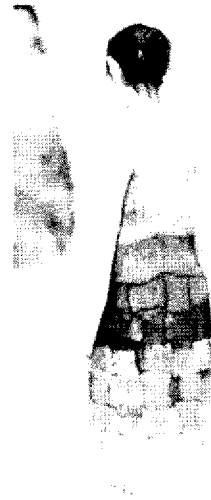
[그림 10] 진태욱
95 S/S Pari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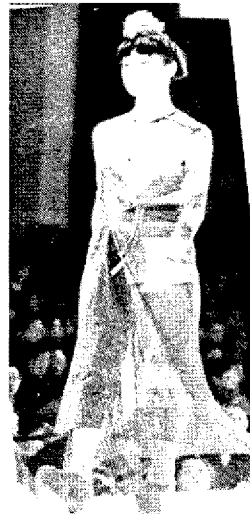
[그림 11] 홍미화
1994 F/W Pari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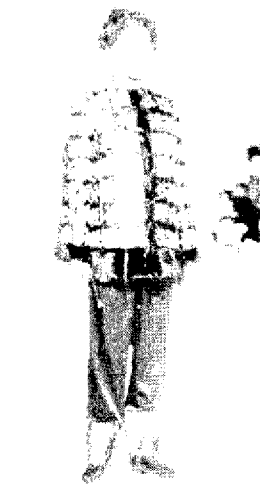
[그림 12] 이영희
마담피가로 프랑스판 1996.6



[그림 13] 한혜자 1995 S/S [그림 14] 설운형 1995 S/S



[그림 15] 이신우
1994 F/W Paris Collection



[그림 16] 오은환
94 F/W SFFA Collection

3) 세계화의 배경

패션에 있어서 포스트모던적 표현은 건축과 유사한 모더니즘적 패션경향인 물역사성, 국제주의적 성격과 가능성에 대치되는 역사성, 토속성, 전위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 역사성에 반발해 역사를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회고나 재현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모든 요소들을 임의적으로 조립 절충한다. 80년대 패션의 중요한 특성인 전통의상의 인용, 모방, 복사가 보여 지는 가운데 (원명심, 1992) 88올림픽은 한국의 전통복식이 세계무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다국적 자본주의와 사회영역이

없는 괴상한 문화적 확장과 정보화 사회로 변화한 현대의 텔레마티크(Telematique)¹⁾현상이 가속화된 원동력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21세기 디지털 혁명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융합되어 강력한 정보통신망들이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로 몰아가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되어 지구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까지 글로벌화 시키고 있다(이관형, 2001). 이러한 현대의 복수문화주의는 각 나라들 자체 안에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서구가 강요한 절대미(絶對美)에 대한 수백년에 걸친 무의식적 추종에서 벗어남으로써 미의 상대성이 대두되고, 제 3국의 미가 융합되고 있어(유순례, 2002) 이에 대한 패션의 반발은 이전시대의 동양에 대한 동경이나

단순한 재현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고, 실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패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동양의 여유와 여백의 미에 관심을 갖게 하고, 동양사상의 세계적 확대로 보여 진다

최근 한국 디자이너들은 전통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며 현대복식에 있어 국제성, 보편성 속에서 한국적 고유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오리엔탈 룩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한국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한국의 전통미는 한복의 세계화를 통해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을 표현 하였고, 젊은 디자이너의 현대적 세계화에 따른 전통미와 믹스된 스타일의 미적 범주를 정리하였다. 대표적으로 오리엔탈 믹스, 탈기교의 자연미, 비정형 해학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적디자이너 작품에 보여지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통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1. 믹스 오리엔탈 스타일

오리엔탈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절충적 양식은 서양의 것과 동양의 것, 현재와 과거가 혼재하며 문화의 혼합과정에서 고급과 저급예술,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이 혼용된다(한승희, 2000).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붕괴는 전 세계를 상대로 다양한 이미지들이 혼합된 형태의 산물로 전개되며 독특한 민속적 이미지들과의 접촉으로 문화변동에 적극성을 가져오게 된다. 패션에 반영된 이러한 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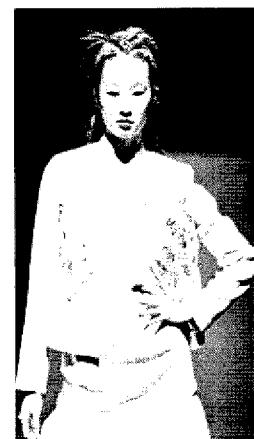
엔탈리즘은 국내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대의 일상화된 서양복식의 형태에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함께 표현되기도 하고, 과거의 전통요소를 적절히 믹스하여 하나의 복식에 여러 요소들을 함께 표현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림 17]설운형의 작품은 '한국적인 오리엔탈리즘'을 옷으로 승화시키는 그는 2000년대 이후부터 '입을 수 있는 옷'에 더욱 치중하면서 한층 모던함과 시크함을 선보이며 서양복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디테일이나 텍스타일, 색상, 형태에서 한국적 오리엔탈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8]은 서구화된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적 느낌으로 디자인하여 원래 우리의 것(오리엔탈)을 패션 트렌드에서 표현하고 있는 박윤정의 작품이다.

국가 간의 문화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요소 또한 믹스되고 절충되면서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오리엔탈풍의 디자이너인 임선옥은 동양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중국의 차이나 칼라나 한복 고유의 선, 형태의 디자인과 색채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디자인에서 다양한 동양적인 요소를 보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19)(www.headsport.co.kr). [그림 20]은 진태욱의 작품으로 형태는 전형적인 서양복식의 형태이나 전통적인 문양을 자수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복식의 양식인 오비를 응용하여 디테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절충적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오리엔탈양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7] 설운형
2001 S/S SFAA Collection



[그림 18] 박윤정
2003 F/W Seoul Collection

1) 텔레마티크(Telematique):프랑스어로 통신(tele-communication)과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infor-matique)의 합성어이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정보의 생성과 처리, 유통 등의 역할을 컴퓨터와 통신이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9] 임선옥 03 S/S [그림 20] 진태옥 2003 F/W
(자료출처:www.imseonoc.co.kr) (자료출처:www.firstview.com)

2) 탈기교의 자연미

한국의 조형관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의 조화 내지 순응을 이루며 지나치게 인공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유교, 불교 등에서 얻은 사상적 배경을 “탈기교의 미학”(김영기, 1994)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오리엔탈 룩에서 보여 지는 내추럴한 소재의 사용과 자연친화적 이미지들은 계속되어지는 문명의 발전과 개발에 대하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한 연구는 자연과 조합, 합일을 이루려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정신적, 사상적 특징에 부합하여 오리엔탈 룩은 현대패션의 곳곳에서 자연 친화적 소박미로 표출되어진다(한승희, 2000).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여유로운 실루엣과 착장방법, 직선보다는 자연스러운 곡선의 형태, 장식을 배제한 디자인의 단순함, 천연소재의 사용 등은 현대패션에 반영되고 있는 오리엔탈 룩의 대표적인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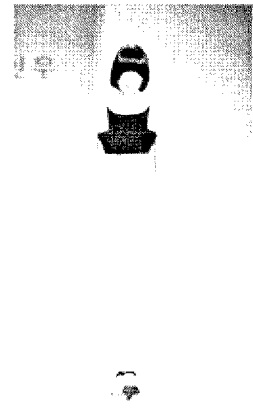
[그림 21]은 옛 것에서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줄 아는 오은환의 작품으로 옷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느질인 '시침질'을 응용하여 복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단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반영하며 소박한 한국적 오리엔탈을 표현하였다. [그림 22]은 이신우의 작품으로 2000년대 이전에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강한 문양과 자수등의 기법으로 표현되던 오리엔탈 이미지가 지극히 단순화되고 절제되어진 미니멀리즘한 양식으로 표현되며 장식을 배제한 탈기교적 오리엔탈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3>은 임선옥의 작품으로 한국의 고유미를 인공이나 인위를 가미하지 않은 자연주의적인 소박함을 표현하기 위해 데님에 천연염료 염색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디자이너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보이며 한국적 오리엔탈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림24>는 이영희의 2004 파리 프레타 포르테에 발표된 작품으로 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라인으로 기교를 부리지 않은 형태의 단순함이 복식이 착용되었을 때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며 민족 고유의 백색과 조화를 이루며 은은한 순수미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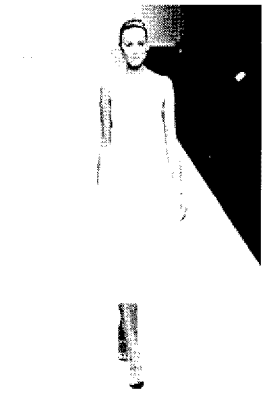
[그림 21] 오은환 2001 S/S
(자료출처:www.vogue.co.kr)



[그림 22] 이신우 2001 S/S
Seoul Collection



[그림23] 임선옥 2003 S/S
(자료출처:www.imseonoc.co.kr)



[그림 24] 이영희 2004 S/S
Paris Collection

3) 한국적 해학미

우리 민족에 있어서 해학의 미는 삶의 인고(忍苦)의 역경을 웃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생각과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낙천적인 성향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 할 수 있다(윤보연, 배수정, 2001). 한국인들은 꼭 짜여진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며 답답한 상황이 생기면 파격적인 방법으로 깨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으로써 전혀 익살을 부릴 수 없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익살을 부리거나 파격적인 일탈을 작품에 반영시켰던 것이다(이효진, 2001).

한국의 전통복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정형적인 미는 현대 디자이너들에 의해 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전개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오리엔탈 룩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에 화려하고 관능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져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표현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www.nfx.co.kr).

<그림 25>은 오은환의 작품으로 파격적인 색상과 장식으로 형태, 소재, 색상을 어우르며 화려하고 관능적인 이미지로 전통복식의 조형미를 세계에 선보이고 있다. <그림 26>은 이영희의 작품으로 한복의 치마의 형태와 드레이프를 응용하여 관능적인 상의로 표현함으로써 상하의의 개념을 파괴하는 유희미를 표현하고 있다.

4) 색채미

한국의 색채는 도자기의 막사발에서 느껴지는 단순함, 질박함, 투박함의 자연색상과 다양하고 원색적인 무속신앙의 이미지에서 보여 지듯이 색동의 컬러풀한 미를 보여주고 있다.

김지해는 프랑스의 패션무대에서 한국의 자연미와 건축미, 공간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로 한국의 노방이나, 마, 매듭 끈 등 지극히 한국적인 자연색상과 원색의 이미지로 서양의 관능적인 드레스로 풀어내고 있다. 그녀는 한국의 옷감과 바느질기법 등 한국 고유의 전통소재를 가장 현대적인 의상으로 훌륭하게 재창조하였다(그림 27). [그림 28]은 2004 S/S 파리 프레타포르테에서 발표한 이상봉의 작품으로 샤머니즘을 주제로 독특한 의상을 선보였다. 한국의 문화와 자신의 옷을 접목시켜 문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이상봉은 한국에서 직접 초청한 무속인의 한판 굿으로 시작된 컬렉션은 한국의 민속적인 컬러를 표현하며, 한국적인 패턴과 화려한 원색으로 한국적 모티브가 다양한 의상을 표현하였다. 이번 컬렉션을 통해 한판 굿을 벌인 듯 행운과 기쁨을 선사하고 싶었다는 이상봉은 하위문화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지던 무속신앙의 이미지를 의상에 접목시키는 색동의 색채미를 과감히 표현하였다.



[그림 25] 오은환 2003 S/S SFAA Collection



[그림 26] 이영희 2003 F/W Paris Collection



[그림 27] 김지해 Fall 2002 houte couture



[그림 28] 이상봉 2004 S/S Paris Collection

V. 결론

20세기 오리엔탈리즘은 20년대의 art deco, 러시아발레단을 시작으로, 1960년대의 히피운동에서 더욱 동양사상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오리엔탈리즘은 1989년대 이후 포스트모던 사상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회고나 재현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모든 요소들을 임의적으로 조립 절충하는 사상적 배경으로 한복을 세계에 알린 이후,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의 계속적인 국제무대의 진출로 전통의 현대화 작업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한국디자이너의 전통 착장법의 이해, 한복에서 보여 지는 풍성하고 여유 있는 실루엣, 치마저고리의 비례, 디테일 등은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구복식의 조형성과 한국적 모티브의 형태미는 다국

적 자본주의와 사회영역이 없는 괴상한 문화 확장, 정보화 사회로 변화한 배경에서 보여 지는 글로벌 라이프 시대에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으로 세계적 디자이너들의 트렌드 컨셉과 맥락을 같이한다.

현대사회의 복수문화주의는 서구에 의해 강요된 절대미에 대한 무의식적 추종에서 벗어나, 미의 상대성이 대두되고, 제3국의 미가 대두되는 가운데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에 동양의 미는 중국과 일본 일색의 극동의 미에 좀 더 한국적 시각의 오리엔탈 미를 한국적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믹스오리엔탈리즘, 탈기교의 자연미, 한국적 해학미, 색채미로 분류하여 작품을 분석해보았다.

주제어 : 복수문화주의, 믹스오리엔탈리즘, 탈기교, 자연미, 해학미, 색채미

참 고 문 헌

- 권유진(1997). 오리엔탈리즘의 패션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현주(1998). 동방문화에 영향을 받은 비잔틴 복식문화의 특성에 대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기(1994).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 박상오(2002). 오리엔탈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 · 이현주(1998). 색채디자인. 교문사.
- 성향숙(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은희 · 구인숙(1997). 198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특성에 관한연구.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유순례(2002). 20세기한국여성복식에 나타난 근대성, 탈근대성, 세계화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보영 · 배수정(2001). 현대패션에 반영된 전통미의식에 관한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 5권 4호.
- 이관형(2001). 글로벌전략. 도서출판 석정.
- 이병화(2002). 한국복식의 이미지요소가 상용된 글로벌패션디자인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6권 1호.
- 이승찬(1997). 오리엔탈리즘을 해부한다. 전통과 현대, 겨울호.
- 이춘희 · 신상옥(2000). 현대복식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의 기호학적 분석. 복식, 50/4
- 이효진(2001). 1990년대 전후한국서양여성복식에 표현된 "자유분방함"의 미. 패션비즈니스학회, 5권 1호.
- 장승미(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V.Steele(1998). Paris Fashion: A Culture History, N. Y Oxford Univ.
www.nfx.co.kr
www.imseonoc.co.kr
www.headsport.co.kr

(2004. 08. 31 접수; 2004. 10. 12 채택)